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벨라기아 수녀순교자

부활 후 제 3주일 / 향유 가진 여인 주일

성 디모테오, 마부라 순교자

성 베드로 아르고스의 주교

제 2조, 조과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제 1,2,3 응송 / 사도경 21~23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부활 입당송 '모두 다 모여' / 부활절 예식서 38

•아리마태아 요셉 축일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75

•향유 가진 여인 주일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76

•부활 시기송 / 부활절 예식서 39

•사도경 : 사도행전 6:1~7 / 252, 봉독서 42

•복음경 : 마르코 15:43~16:8 / 98, B 16

•성모송 / 부활절 예식서 26

•영성체송 / 부활절 예식서 42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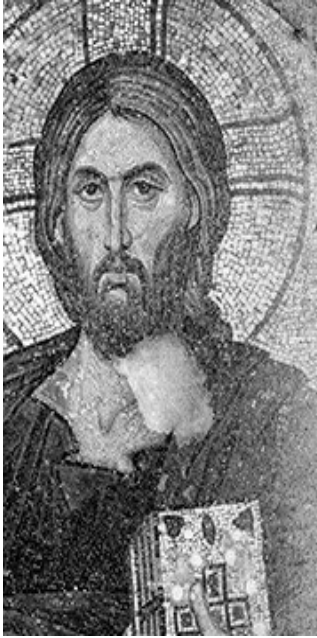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이방인들의 사도인 성 바울로는 한 서신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례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도다.”(갈라디아3:27)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세례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습니다. 자신을 덮고 있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옷(튜닉)을 입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5월 4일 축일로 기념하는 벨라기아 성인도 세례 받을 때 보이고 싶어 하였습니다. 성녀는 귀족이었던 우상숭배자 아버지로 부터 떠나 화려한 장식이 되어있는 무거운 옷을 입고 몰래 그 도시의 주교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벨라기아 성녀는 세례를 받고 주교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옷을 팔아달라고 말기고, 자신은 세례성사 때 입은 흰색의 옷(튜닉)을 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벨라기아 성녀는 희고 깨끗한, 이 옷(튜닉)으로 그리스도를 입었고, 순교의 길을 따랐습니다.

천국, 하느님의 나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때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주셨다.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다가왔다!"

마태오 복음 4:17

주기도문 중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내용이 있다.

하늘나라가 하느님 아버지께 의해 다스려지듯이, 하느님께서 이 지상을 다스리시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도 천국, 즉 하느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 전도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첫 말씀이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였는데 이는 이 땅에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심으로 이 땅위에도 천국인 하늘나라가

수립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이다.

모든 나라에는 지도자가 있어 나라를 이끌 듯이 이 땅위에 세워진 하느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이시며,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나의 왕"이라 부르기도 한다.

"시온의 딸에게 알려라. 네 임금의 오신다. 그는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타시고 멩에 메는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마태21,4-5) 라고 예언자가 말씀하셨듯이 성 대주간이 시작되는 성지 주일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왕으로서 입성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 땅에 있는 천국을 비유할 때 교회 교부들께서는 수도원을 하느님의 나라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수도사들의 일상이 하느님을 왕으로 모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 이루어진 교회 역시 하느님의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나라,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받았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성경말씀을 통해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성 마태오 복음사도가 말씀하신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그리고 주님 때 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 만이 죽기 전에 이미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영적성장을 위한 비타민

비단결같은 사람들!!!

사랑은 결코 소리를 지르지않는다...

그러나 당신은 그곳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사랑이 주위에 퍼뜨리는 향기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

내 영혼은 언제나 깊이 감동받는다.

그들의 신앙과 눈물을 통해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사려깊고 분별력있는 삶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 주변을 사랑으로 물들인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한 행위와 노력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숨기는 이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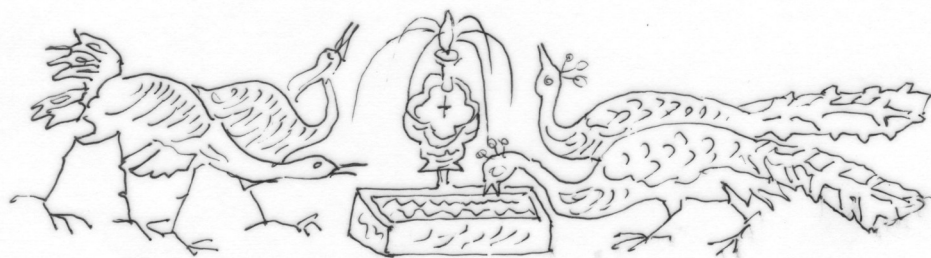
그들은 겸손한 태도로 영원의 향기를 지닌 덕을 밝게 비춘다.

이로써 그들은 지상에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이들은 비단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은은한 빛을 비춘다.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많으며 자비로우신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다!

아타나시아



소식

대교구

➡ **부활하신 주님께 간청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더 진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토요일 대만과와 주일 성찬예배를 생중계할 것입니다. 신자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성당에서 서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매일 밤 10시에 드리는 기도에도 전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영혼의 안식과, 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이 질병으로부터 세상을 보호해주시고, 이 재난이 사라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치료약을 개발하고 있는 학자들에게 하느님의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 **우리 형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성가대장인 가브리엘 김정선 교우의 아버지이신 세라핌 김선률 교우께서 병환중에 있습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과 안토니오스 임종훈 사제, 요한 박인곤 보제가 방문하여 회복을 위한 기도식을 드렸습니다. 아주 위독한 상태로, 우리 영혼과 육체의 치유자이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간예식

5월 8일(금) 성 요한 복음사도 신학자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